



주제: 4. 니느웨의 운명은? (용서의 하나님, D-40)

달달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10)

이야기 성경

* QR코드를 스캔하여 말씀채트를 만나보세요~!



말씀 배우기

1.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2.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3. 요나의 그 후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며 적어봅시다.

성경이 궁금해요~!

다시스 (Tarshish)

다시스는 역사적으로 금속이 풍부해서 금속 가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인지 다시스는 ‘금속 제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이었기에, 당시 사람들은 그곳을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 것은, 저 멀리 땅 끝까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 (Nineveh)

니느웨는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에 의해 세워진 도시였는데, BC 12세기경부터 앗수르의 주요 도시가 되었어요. BC 8세기경 앗수르 왕 산헤립이 이곳을 수도로 삼아 당시 중근동에서 가장 영화롭고 번성한 도시가 되었답니다. 그 후 한동안 그 지역에서 니느웨와 견줄 만한 도시는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특히 앗술바니팔의 궁전이나 왕실 도서관이 유명한데, 정치, 종교, 문화를 총망라하는 26,000여 개의 서판은 당시 앗수르(니느웨)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눠 봐요

- *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 눈을 감고 내가 잘못된 것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기도해봅시다.